



4월의 기도

1. 싱그러운 4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어지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봄은 여전히 아름답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주어진 4월 동안 주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2.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 특히 전쟁과 내전,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세계 곳곳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어려운 상황들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곳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4. 총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도 정치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자신과 진영의 이익이 아닌 국가발전을 위해 일을 할 지혜롭고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 하소서.

5. 우리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소중히 여기는 가정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오현주,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8)

불신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기적을 행하셨으나 오늘날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 사역을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던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호느껴 울면서 “주님께서 나할 전에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며 미래의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만 인정하고 현재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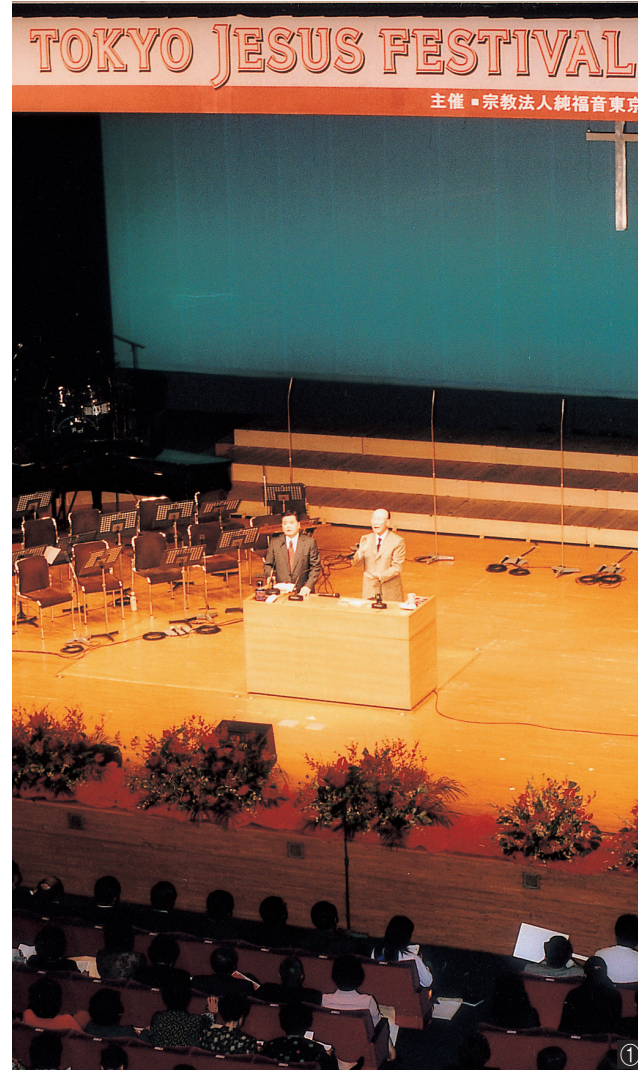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2003년 해외성회

< 일본 성회 >



① 2003 예수축제(Jesus Festival)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는 조용기 목사와 통역을 맡은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② 성회에 참석한 자들은 뜨겁게 기도를 했다.
③ 병환 중에도 성회 현장에 참석한 한 성도

2003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예수축제'(Jesus Festival)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예수축제'는 일본에서 일본 일천만 구령의 주요 수단으로 전개해오고 있는 큰 복음성회다. DCEM과 순복음동경교회의 공동주관으로 2003년 10월 15일 에도가와 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일본순복음교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2003년 예수축제는 일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순복음교인 2천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성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회 장소에 모여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성회를 준비했다.

순복음동경교회의 한 관계자는 이 때 “매년 예수축제로 인해 전체 참석자의 5% 이상이 결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본 성회의 양케이트 분석결과 참석자들 중 60%가 일본인으로 알려졌으며 교민이 40%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예수축제'가 교민들만의 축제가 아닌 일본 기독교인들의 축제로 정착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회를 통해 신앙을 결신한 사람이 2백여 명에 달해 선교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성회는 지난 1996년 일본 일천만 구령의

일환으로 기획돼 2003년으로 8년째를 맞는 예수축제로, 이 축제가 처음 개최된 곳 에도가와 문화센터에서 다시 열린 곳으로 의의를 더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엘림의 축복'에 대해 설교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쓴물 가운데 살고 있다”고 전제하고 “삶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쓴 물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변화를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최자실 목사의 일본선교 그리고 '일본 인구의 10%를 복음화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조용기 목사가 시작한 '일본 일천만 구령'은 20세기 일본선교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기반으로 1977년 창립한 순복음일본총회는 현재 8개 지방회(동경·동북·관동·관서·보소·큐슈·중부·동리시아), 84개 교회, 120여 명의 선교사가 순복음의 오증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백부장의 믿음

...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 (마태복음 8장 5-13절)

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 한 마디면, 자기 하인이 즉시 나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면서 자녀가 누리는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게 되듯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권세를 누리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장 17-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2.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말을 보면, 그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

3.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하인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W. Barclay)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를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근거한 믿음은 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리라”(마 5: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중심에 두고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킴으로 항상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차원의 영성

- 믿음 -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환경 보다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분히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매일 점검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소유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이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영적인 눈이며, 믿음이 없이는 결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좌석수가 2만 5000개인 세계 최대의 성전을 건축한 인도네시아의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던 자신의 둘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서 그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그 아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 만일 여러분이 알렉스 목사처럼 기적을 체험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차원의 영성인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특권을 활용해야 한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기적의 씨를 심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

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복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6장 7-9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기도로 구한 것이 이미 응답 받았음을 고백해야 한다.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미 치료받았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해야 하며, 직장이나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미 직장이나 배우자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으로 받았음을 바라보고 선포해야 한다. 그리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를 통한 기도응답의 축복은 3차원의 세계에 4차원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했을 지라도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할 때에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의심과 사탄의 유혹을 몰아내야 한다. 평안한 마음이 올 때까지, 다시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절대절망을 절대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의 매개체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그분은 시편 145편 19절에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요 10: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을 잘 활용하여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기도드린다.